

무안군, 전기자동차 5대 추가 보급

무안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9일부터 18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군은 상반기에 7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으나 예상한 공모 대수에 미치지 못해 추가 보급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지원대상 차량은 현대 코나와 아이오닉, 기아 쏘울과 레이, 르노삼성 SM3, GM 볼트, BMW i3, 테슬라 모델S 닛산 LEAF 등이며,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1,750만원까

오늘부터 18일까지 보급사업 신청 접수

승용차 기준 최대 1750만원까지 차등지원

지 차등 지원된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도 받게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어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8일까지로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대리점을 방문해 자동차 구매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대리점에서 군으로 접수하게 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청정 무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군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안군이 되겠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흥토요시장 개장 13주년

“잘되는 시장엔 이유가 있다”

오는 15일까지 장흥한우 10% 할인 판매 진행

지난 7일 개장 13주년을 맞은 장흥토요시장이 고객감사 큰잔치를 열었다.

이날 오전부터 펼쳐진 개장 13주년 기념행사는 기념식, 축하 공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졌다.

기념식에서는 토요일시장 발전에 공헌한 토요일시장 상인 문상일 씨와 김동수 씨가 군수표창을 받았다.

이날 토요일시장에서는 장흥한우를 평소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고객감사의 뜻을 담은 이번 한우 할인행사는 오는 15일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흥군특산물판매장 상품 5% 할인판매, 시장나들이 특색음식 무료시식,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렸다.

정남진 장흥 토요일시장은 주 5

일 근무제가 시작된 2005년 지역 특산물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전국최초 문화관광형 토요일시장'으로 개장했다.

2015년 한국관광의 별, 2016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흥한우삼합을 비롯한 먹거리와 친환경 지역특산물을 앞세워, 연평균 매출 1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전국 최고의 성공한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전통시장으로서 전국 최초로 소비자보호 리플서비스를 운영해 고객 신뢰를 얻는 등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토요일시장 관광객과 지역민이 어우러진 지역 최고의 문화공간"이라며, "개장 13주년을 맞아 보다 친절하고 깨끗한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대덕읍, 훈훈한 영농 위로 한마당

장흥군 대덕읍은 지난 6일 관내 식당에서 이장단과 함께 비쁜 농사철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영농 위로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덕읍에서 모내기, 양파 수확 등 주민 영농 지도에 헌신한 이장단의 노고를 위로하고 이장단에서는 이번 집중호우 시 전 직원 주말 비상근무를 통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준 읍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순 장흥군수 이장단과 주민 80여명이 참석해 읍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재천 대덕읍장은 "마을 발전과 안녕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장님들과 읍민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는 직원들이 비록 한 끼의 식사지만 꼭 함께하고 싶었다"며 "올해에는 풍년 농사 뿐만아니라 정남진 장흥물축제 또한 대박이 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친환경 완도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개장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 위해 만반의 준비”



지난 6일, 남해안 최고 여름 휴양지인 완도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이 전남에서 가장 먼저 관광객 맛을 시작했다.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은 깨끗한 바다와 고운 모래, 수려한 경관으로 이름나 있으며, 공기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음이온이 대도시보다 50배에 이를 정도로 풍부해 여름휴가를 건강하게 나기에 제격인 곳이다.

또한 2017년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 해수욕장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관리 우수 해수욕장과 으뜸 해수욕장으로 동시 선정된 바 있다.

개장식에서는 환경 정화 활동, 댄스팀 공연 등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부당 요금 근절 결의문 낭독, 해양 인명구조 시범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안전을 위해 해상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와 긴

급 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119 안전센터와 완도해양구조대의 합동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장 기간 동안 완도군과 해양구조대에서는 10톤 급 장보고 인명구조선을 운영할 것이며, 최신 장비와 최고의 안전 요원을 투입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완도군은 해수욕장 개장 전 화장실 및 샤워장 배수로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풀장과 에어바운스, 대형 슬라이드 등 물놀이 시설을 준비 중으로 13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즐길 거리까지 있는 여름 휴양지를 찾는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일 것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축사를 통해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아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진도군,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 꿈 키운다

진도군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청년 동아리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동아리 육성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이 서로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로 일자리,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지역 활성화 등 4개 분야이다.

동아리 팀 모집은 2~5개팀으로 사업비 지원은 팀별 200만원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진도군청 기획조정실 인구누리기담당(540-3017).

지원 자격은 만 18세~49세 이하 5명 이상 청년으로 구성하고 신청서류는 진도군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는 17일(화)까지 진도군청 기획조

정실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진도군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이 유출되는 현상을 막고 지역에 사는 청년에게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동아리 육성 사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청년과 함께 청년이 살고 싶은 진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정책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조성용 기자

완도군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